

수출초보기업의 세르파, 전문무역상사 400개사 확대

- 전문무역상사 제도 재정비 및 소비재 전문무역상사 육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전문무역상사 :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지정한 수출대행 기업

6.8.(목)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2021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어 안전부품, 미용기기 등의 수출을 대행하는 (주)올릭스글로벌*를 찾아, 전문무역상사가 국내 내수기업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킨 성공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무역상사 제도 내실화를 논의하였다.

* (주)올릭스글로벌 : 안전부품 등 수출대행(22년 312만불), 제59회 무역의날 삼백만불 수출의 탑(22년)

산업부는 2023년 400개사(’22년 330개사) 이상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무역상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확대, 현지 지사 역할 지원,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와 동반 해외관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상담회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실시간 매칭이 가능하게 홈페이지(<http://ctc.kita.net>)를 개편하여 수출초보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나아가 전문무역상사 취급 품목 확장을 위해 패션·리빙 등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지원할 ‘소비재 전문무역상사’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 품목 및 수출지역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가 마케팅, 유통, 바이어와 수출계약 및 시장개척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절차와 지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재정비하여 전문무역상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량있는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고 이들과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030)
	무역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장지혜 (044-203-4017)

- (개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수출초보기업 또는 내수기업) 등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 시행**(‘14년~)

* (지정요건) ①**전년도 또는 최근 3년 평균 수출 1백만불 이상이며, 他 중소·중견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②대기업 무역상사, 유통전문기업, 전자상거래, 해외조달, 재외동포기업 등

- (연혁) 종합무역상사제도 폐지 후 무역협회에서 민간지정 형태로 운영(‘09.10월) →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제화(‘14.7월)
- (인센티브)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KOTRA, 무역협회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KOTRA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가점, 무보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 KOTRA 해외 전시회 선정 가점, KOTRA 지사화 사업 선정 가점, 무보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대항수출 물류비 지원 등

- (운영 현황) 총 330개사 운영

- (구성) 중소기업 282개사, 중견기업 20개사, 대기업 15개사, 재외동포기업 11개사, 조합 등 기타 2개사로 구성
- (성과) 최근 5년간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268억불 수출 대항** 지원

구분	'18	'19	'20	'21	'22
전문무역상사 지정 (개사)	240	306	391	332	330
수출 대항액(억불)	46	56	54	57	55

- (일정) 23년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정(7월 중) 및 사업 추진
 - '23.5.1~5.31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신청 모집 완료
 - '23.7월 중 전문무역상사 지정(400개사 이상) 및 '23년도 사업 추진